

# 소식

##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 인천소식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인천시립극단과 SK와이번스의 공동마케팅**  
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정진)이 관객 확보 차원에서 인천 지역 연구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와 공동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립극단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산불〉을 공연했다. 특히 이번 공연부터는 관객에게 인천 지역 연구 프로야구팀인 SK와이번스의 홈경기 무료 입장권과 할인권을 주기로 한 것. 우선 유료 관객 200명에게 SK와이번스의 홈경기 무료 입장권을 제공했다. 또 〈산불〉 공연 관람 티켓을 갖고 문학경기장에 갈 경우, 40~50%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SK와이번스도 야구장 입장객 중 추첨을 통해 산불 무료 초대권을 제공했다. 야구장 입장권이 있는 관객은 연극 공연 관람료를 일정액 할인받을 수 있다.

무료 입장권과 할인 혜택은 시립극단이 공연하는 기간, SK와이번스의 인천 홈경기에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시립극단은 〈산불〉 관객 중 추첨을 통해 중앙기축병원의 애견진료권도 준비했다. 지역 연극계와 시립예술단은 시립극단의 이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연극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조정래 씨의 『아리랑』 연극 무대에

인천시립극단이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연극 무대로 옮긴다. 시립극단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아리랑』을 연극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원작자인 조

정래 씨와 작품 사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설 『아리랑』은 『태백산맥』과 함께 밀레니엄셀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정래 씨의 대표작이다. 『아리랑』은 전라북도 김제 출신자들이 군산과 하와이, 동경, 만주, 블라디보스톡 등지로 옮겨 40여 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진 시립극단 예술감독이 연출하고, 엄태경 씨가 각색을 맡을 예정이다. 시립극단은 오는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아리랑』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 독도수호, 死월事일祭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왜곡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를 사랑하는 전문예술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온천지에 알리는 아트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 4월 4일 정오부터 인천종합문화예회관 광장에서 거행된 '독도수호, 死월事일祭'가 참여예술행동모임 예풍(공동대표 신중택 임종우) 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퍼포먼스는 '독도, 우리의 조국이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독도사랑 길놀이'를 시작으로 난타 공연, 독도사랑선언문 낭송, 호국불교의 기상을 재현하는 범패무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우리 땅 독도의 역사적, 민족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공연에는 김윤식, 조영숙, 유주희, 박준영, 신중택, 이탈, 능화 정암스님 등 총 120명에 달하는 지역 내 문화 예술인들과 독도수호대, 독도사랑지킴이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독도수호와 일본방인 규탄 캠페인을 벌였다.

#### 인천연극제 개막행사 세미나

인천연극협회가 인천연극제 개막행사로 4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21세기 인천 연극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인천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연극 전용 공간을 비롯해 공연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용우(전 인천연극협회 지회장) 서부교육청 장학사는 상설공연장은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하며 연극인들의 재교육 공간이 될 수 있고 지역 학생들에게 미적 감각과 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장학사는 시나 구 등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연극 혹은 공연 전용시설을 늘리고, 이를 연극협회 등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경 인천전문대 연기예술과 교수는 인천 연극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무대라는 고정화된 틀을 벗어나 상상력을 동원해 공연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병배 인천시의회 시의원은 "기존 다목적 홀식의 대규모 소비적인 공간보다는 소규모의 활동적인 공간이 건립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극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어렵다면 소극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탄생 100주년

한국 미술사의 시조,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선생의 학문세계와 생애를 되돌아보기 위해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마련한 시민강좌가 6일 인천 연수문화원에서 열렸다.

‘인천사람 한국미술의 길을 열다 : 우현 고

유섭'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문명대 동국대 교수(한국미술사연구회장)는 식민지 시대 암울했던 시대를 불우하게 살면서도 근대 미술사의 기초와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한 천재학자 고유섭 선생의 생과 학문적 업적을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 경기소식

류 주 선  
경인일보 기자

### 경기도문화의전당 2천만 원 뮤지컬 공모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홍시중, 이하 전당)이 경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형 뮤지컬을 만든다. 전당 측은 이 뮤지컬을 위해 상금 2천만 원을 걸고 대본을 공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역예술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당 관계자는 "경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의 대형 뮤지컬을 제작해 대표 레퍼토리로 삼을 예정"이라면서 "참신한 대본을 찾기 위해 전국의 기성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대본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출은 국내 정상급 연출가에게, 음악은 세계적 작곡가에게 의뢰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뮤지컬의 내용은 정조대왕, 정약용 등 경기도와 관련 있는 인물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 화양사 등 문화유산을 소재로 삼을 예정이다. 전당 측은 뮤지컬 《명성황후》를 능가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야심 아래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에 돌입해 내년 하반기에 초연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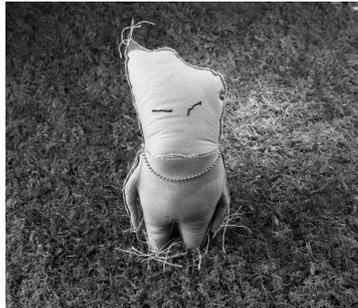
전당 측은 이 작품이 완성되면 현재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는 어린이 교육 뮤지컬 《신데렐라 신데렐라》, 세계시장을 겨냥해 러시아 연출가 빅토르 크라에르를 영입해 제작하고 있는 태권도 퍼포먼스 《달(The Moon)》과 함께 전당의 3대 레퍼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관광기념품 디자인공모전 2005 경기도 전》 경기관광공사(사장 신현태)가 『2005 경기 방문의 해』를 기념해 국제공모한 《세계 관광

기념품 디자인공모전 2005 경기도 전》을 고양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KINTEX)에서 지난달 14~17일 나흘 동안 개최했다.

이 자리는 '아름다운 것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1년 동안 준비한 세계적 디자인의 관광 기념품 142점과 국내외 우수 관광지 기념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여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편 국제공모 대상작은 독일 비안카 비에마이어 씨의 〈인삼맨〉이 선정됐으며 금상은 김정아 씨의 도자작품 〈...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김미희 씨의 섬유작품 〈쌈지의 색〉이, 은상은 최인태 씨의 〈뷰티풀 메모리〉와 브라질 마리아 루이자 카스트 씨의 〈카사 그랑데 재털이〉가, 동상은 김성은 씨의 〈한치 인형함〉 등 4점이 차지했다.



대상작 비안카 비에마이어의 〈인삼맨〉

### 플루티스트 김영옥 독주회

플루티스트 김영옥 씨가 '스프링 판타지아(Spring Fantasia)'라는 타이틀로 지난달 15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독주회를 개최했다. 플루트 독주회로선 수원에서 처음 열린 이 연주회는 최근 플루트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마추어 플루트 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어 본격 플루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찰스-마리 위더의 〈로망스와 스케르초〉, 보흐슬라브 마르티누의 〈첫 번째 소나타〉, 프랭크 마틴의 〈발라드〉, 카스파 쿨머의 〈플루트, 클라리넷, 클라비어를 위한 콘체르티노 Op.101〉(피아노 글라돈 에브게냐, 클라리넷 이요한) 그리고 조지-아돌피 후에의 〈판타지〉 등 봄의 낭만과 생동감을 전하는 음악들로 꾸며졌다.

김씨는 추계예대와 네덜란드 브라만츠 콘서트바토리엄, 러시아 모스크바 그네신 아카데미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경기도립 오케스트라, 부천 신포니에타를 비롯해 국내외의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봄(Bohm) 24 플루트 앙상블'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지난 3월 안토니 곰리의 대형 설치작 〈아시아의 땅〉을 이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설치하고 있는 모습

63개국 3천여 명의 도예작가가 참가한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경기도 이천 광주 여주에서 지난 23일 개막됐다.

경기도(도지사 손학규)가 주최하고 (재)세계도자기엑스포(사무총장 남기명)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오는 6월 19일까지 58일 동안 이천 세계도자센터,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등 세 곳에서 계속된다.

올해 주제는 '문화를 담은 도자·교류 탐구 확장'이다. 도자예술에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담아내고 시대적 담론들을 반영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획전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세계현대도자전〉, 한국과 중국의 청자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세계청자전〉, 생활공간 속의 도자 활용을 보여주는 〈세라믹하우스전〉, 다양한 형태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세계주전자전〉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매체를 넘어' '몸의 운위' '일상의 시학' '전통, 역사 그리고 문화' '포스트 글로벌 사회' 등 5개의 테마로 나눠 열린 세계현대도자전에는 영국의 앤터니 곰리, 리처드 슬리, 프랑스의 파브리 시베, 벨기에의 피에트 스투만, 미국의 닐 테트코프스키, 호주의 마이클 둘란, 일본의 미와 가즈히코, 중국의 유지엔화 등 세계적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어 관심을 더했다.

특별전으로는 도자건축재의 특성을 보여주는 <도자와 건축전>, 도자의 광범위한 활용을 집작할 수 있는 <세계도자기기념품전>, 자연을 주제로 한 도자작품과 전통 목가구 등의 어울림을 보여주는 <자연과 함께전>이 마련됐다.

재단 측은 이에 앞서 67개국 1천430명이 출품한 국제공모전에서 필립 바드(스위스) 씨의 <얼굴 모양 용기>를 대상으로 선정할 바 있다.

**강원소식** 용호선 강원일보 기자

**제22차 예총전국대표자대회**

제22차 예총전국대표자대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동해시 망상그랜드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예총 발전 방안 등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성림)가 주최하고 강원도예총(회장 :배동욱)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배종신 문화관광부차관,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을 비롯해 문인 미술 국악 영화인 연극 음악 무용 연예 국악 사진작가 건축가 등 10개 전문예술단체와 전국 114개 지회 지부대표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2시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강원도인들의 염원인 '2014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지지하며 예술인 모두가 홍보요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성명과 IOC위원장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 김진선 강원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예총회원들은 이어 역사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독도 수호의지를 담은 '충고적 선언 시'를 낭독하고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문제를 둘러싼 외교 및 국제정세 흐름'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이어 오후 3시 바람직한 한국예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나호열(경희대 교수) 예총정책연구

위원이 문화예술정책 및 예술단체 관련 법안 제정에 따른 현안문제 등을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범헌 예총정책연구위원과 설철호 광주연합회사업단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예총의 자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행사 둘째날인 14일에는 전국 7개 권역별로 나눠 좌담회를 열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역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오후에 가진 종합토의에서 회원들은 입법에 고종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종합토론에 강원도예총 대표로 발표한 전태원 춘천예총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한국예총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 분석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화관광부가 기초안을 만들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도 예술창작인들로 구성된 예총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위원회에도 많은 회원들이 위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대표자회의의 마지막날인 1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시·도별연합회 지부장 연석회의를 갖고 폐회했다.

**'GTB문화재단' 탄생**

강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재단법인 'GTB문화재단'이 탄생했다.

지난 3월 29일 발기인총회를 갖고 출범한 GTB문화재단은 지난달 사무국 구성, 법인 등록절차 등을 진행했다.

발기인 총회에서는 강원대 총장을 지낸 박용수 강원대 교수가 이사장에 선임됐다. 또 박 이사장을 비롯 박기병 GTB강원민방대표이사, 김현욱 강원대음악과 교수, 유진규 춘천마임축제예술감독, 임상오 상지대 교수,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 이상국 백담사만해마을운영위원장, 강건 前 GTB강원민방전무 등 8명을 이사로 선임했다. 감사에는 전태원 춘천예총회장이 선임됐다.

GTB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언론진흥 지원사업 문화예술 분야의 네트워킹과 문화자원의 산업화 유도 강원도민의 정체성 확립 및 도

민의 하나 되기 장학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국내 외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용수 (재)GTB문화재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을 위해 출연한 재단인 만큼 도민의 문화수준과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강원문화백서 발간사업을 비롯 지역인 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문화단체네트워크 구축 등에 주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방송매체의 장점을 살려 문화소의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유정문학제**

제3회 김유정문학제가 지난달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춘천시 신동면 실례마을 김유정문학촌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렸다.

김유정문학촌(총장 전상국)이 주최한 이번 문학제는 1930년대 향토성을 바탕으로 『봄봄』 『동백꽃』 등 한국문학사에 빛나는 작품을 남긴 소설가 김유정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비롯 김유정 소설 입체낭송대회, 김유정 산문백일장, 김유정 문학현장 답사기행, 김유정 작품 속 30년대 삶의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소설가인 전상국 김유정문학촌장은 "김유정 선생은 1930년대 가장 개성 있는 소설가로 한국문단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겼다"며 "그의 문학적 열정과 업적을 기리며 해학성과 토속성이 넘치는 작품을 공유하는 한마당 축제였다"고 자평했다.

**충청소식** 이현숙 충청투데이 기자

**씨어터 제이 주최 'ing 페스티벌'**

개성 있는 연출가들이 모여 만든, 젊은 연극인들의 실험극 축제가 청주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공연예술 전문극장인 씨어터제이(대표 장경민)가 주최하는 'ing 페스티벌'로 국내 연극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연출가들의 공연작이 한자리에 선보이고 있다.

제이플랜 주관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2일 까지 씨어터제이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극단 가변의 송형중, 극단 유정의 김혜영, 극단 드림플레이의 김재엽, 극단 시민극장의 장경민, 연극집단 반의 박장렬, 극단 유니크포인트의 오오키코지 등 6명의 연출가가 참가한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청주 지역 극단과 서울, 일본 극단을 비롯해 터키 발리댄스팀이 참가해 연극과 춤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축제로 꾸며지고 있다.

참가극단은 극단 가변의 <맨버거, 그 속엔 누가 들어 있나? 2005>(김재엽 작), 극단 유정의 <아름다운 지옥>(김혜영 작), 극단 드림플레이의 <유령을 기다리며>(김재엽 작), 극단 시민극장의 <페르소나>(김재엽 작), 극단 유니크포인트의 <동경>(다자이 오사무 작), 연극집단 반의 <대빵 큰 고래의 꿈>(박장렬 작) 등이 무대에 올려진다.

이 밖에 리키나 댄스컴퍼니, 터키 발리댄스팀이 각각 춤을 선보인다.

### 극단 새벽의 <한씨연대기>

극단 새벽이 분단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제44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인 연극은 황석영의 중편소설을 무대에 걸맞도록 각색한 <한씨연대기>이다.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연극창고 새벽에서 공연된 <한씨연대기>는 월남한 지식인의 몰락을 통해 분단이 남긴 상처를 생생하게 드러낸 연극이다.

극의 전개는 남북분단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 세 개의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주인공 한영덕의 동생인 한영숙의 이야기를 창작해 이끌어간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힘을 앞세운 이데올로기의 강요 앞에서 몰락하는 한 개인의 인생유전을 다룬 <한씨연대기>는 우리에게 치유할 수 없는 분단의 상처를 안겨주는 연극이다.

작은 조각들로 쪼개진 극은 압축과 생략, 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미끄러지는 것이 흥미롭다. 진중하고 유장하게 작품의 호흡이 이어져 관객들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이상관 씨가 극단 새벽 대

표를 맡은 후 처음으로 연출을 한 작품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 자연미술가 강희준 씨 작품전

20여 년간 자연미술을 일관성 있게 추구해 온 자연미술가 강희준 씨가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제2전시실에서 작품전을 가졌다.

강씨는 지난 80년대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그룹의 창립멤버로 자연미술만을 고집해 온 작가. 설치미술과 퍼포먼스 등 재치와 위트가 풍부한 작업들을 통해 자연미술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왔다.

이번 작품전은 자연미술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모색한 작품 32점을 내놓았다. '흙과 나무가시'를 테마로 자연이라는 열린 공간을 선택했던 중전 전시방식과 달리 실내에서도 감상이 가능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새로운 영감을 바탕으로 재료의 사용이나 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문명과 사회에 대해 풍자와 비판이 두드러져 작품의 메시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소재는 탕자나무 가시, 명감나무 줄기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흙과 솔잎 등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변모되어 가는 자연미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했다.

## 대구 · 경북 소식

이경달  
매일신문 기자

### 제22회 대구연극제

대구 시민의 연극 한마당 축제인 제22회 대구연극제가 4월 9일부터 1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경연제로 치러진 올해 참가작은 극단 이송희 레퍼토리의 <삼류배우>, 극단 한울림의 <도서관 가는길>, 극단 예전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2> 등 3편. 예년과 달리 극단 마투의 <의자는 잘못 없다>와 극단 동성로의 <바하네 옥상정원> 등 비경연 두 팀을 초청해 페스티벌 형식의 공연도 선보였다.

이번 연극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 극작가의 창작극 3작품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이다.

### 구상 시인 시 암송대회

구상(1919~2004) 시인 시 암송대회가 4월 30일 칠곡 구상문학관에서 열렸다. 칠곡군은 지난해 타계한 구상 시인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주민들에게 문학적 정서함양을 위해 올해 처음 구상 시 암송대회를 개최했다.

### <폴란드 그림책 작가 동화 원화전>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제9전시실에서 폴란드 그림책 작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45)의 동화 원화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폴란드 주한 대사관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폴란드 어린이 책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흐미엘레프스카의 생생한 동화 원화 60여 점이 선보였다.

### 대구-제주 교류음악회

2005 대구-제주 교류음악회가 4월 1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대구-제주 교류음악회는 지난 2002년 양 지역 음악발전과 교류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대구, 제주를 오가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음악협회가 제주음악협회를 초청해 이뤄진 이번 음악회에는 제주 음악가 바리톤 김훈, 테너 강형권, 소프라노 이지영과 대구 음악가 이간만, 남성양상률 등이 출연했다.

### 신문의 날 행사

신문의 날 기념식 및 축하연이 매일신문 주최로 4월 6일 오후 대구인터볼고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장대한 한국신문협회 회장과 문창국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회장 등 신문 관련 단체장과 조한길 매일신문 사장 등 언론사 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조해령 대구시장, 이외근 경북도지사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지역문화진흥법 토론회

한국예총이 주최하고 대구예총이 주관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범예술인 토론회'가 4월 9일 오후 1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에는 이영환 한국예총 부회장, 김기봉 지역 문화진흥법 제정 공동추진위원장, 김현모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 정하영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남소식** 강동욱  
경남일보 기자

**올해 경남사랑티켓제 대상작 확정**

예총 경남도지회(회장 이영환)는 3월 17일 오후 2시 경남예총 회의실에서 경남예술사랑티켓 심사위원회회의를 열고 경남예술극단의 <하멸태자>, 극단 현장의 <오구 죽음의 형식> 등 국악 무용 연극 오페라 음악 등 5개 분야 20개 단체의 공연을 참가작품으로 확정했다.

올 경남예술사랑티켓 참가 지원은 국악 2건, 무용 2건, 연극 30건, 오페라 1건, 음악 2건 등 총 36건으로 예년과 같이 연극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중 15건이 탈락해 15건만 선정됐다.

올해 신청 작품 수는 작년 19개 작품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어났으며, 선정작품은 작년의 15개 작품에 비해 5작품이 늘어난 것이다.

이날 심사위원회회의는 작품의 우수성과 예술성 공연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확보가능성(자체자금, 협찬금), 공연단체의 활동실적 및 능력감안 공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예술사랑티켓 참가 단체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국악 : 마산국악관현악단 <한국의 소리를 찾아서>(5월 14일), <하늘소리,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나니>(11월 6일), 오페라 : 창원오페라단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5월 5~7일), 연극 : 객석과 무대꽃 <마치는 달려간다>(4월 9일),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10월 14일~15일), 고도 <고슴도치 이야기>(6월 4일), <신판오광대전>(10월 1일~2일), 마산 <허탕>(10월 8일~9일), <서울열목어>(12월 10일~11일), 미소 <반년의 봄>(4월 22일~5월 15

일), <김치국 세 환장하다>(10월 7일~30일), 벽수굴 <리타길들이기>(5월 중순) <날 보러와요>(12월 중순), 번작 <서툰사람들>(10월 21일~30일), 예도 <짬뽕>(6월) <웅 띠개띠>(12월 중순), 이루마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4월 16일), 입체 <이성계의 부동산>(5월 8일), <다시라기>(10월 14일), 장자번덕 <레이디 맥베스>(12월 15일~16일), 현 <리타길들이기>(6월 18일), 현장 <러브레터>(6월 10일~12일), <오구 죽음의 형식>(9월 2일~3일), 밀양연극협회 <양덕원이야기>(4월 1일~3일), 창원예술극단 <유리의 성>(4월 8일~4월 23일),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10월), 경남예술극단 <하멸태자>(7월 2일~17일), 무용 : 경남발레단 <BIRDY>(12월 19일), 음악 : 마산음악협회 <2005 객안나 바이올린독주회>(4월 2일), 창원음악협회 '2005 고향의 봄 가곡의 밤'(4월 14일).

**경남연극제 최우수상 사천 장자번덕 <태>**

지난 3월 12일부터 진해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9일간의 열전을 펼쳤던 제23회 경남연극제 영예의 최우수상은 사천 극단 장자번덕의 <태>(오테석 작, 이훈호 연출)가 차지했다.

11개 지부 중 9개 극단이 참여해 경연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연극제 단체상에는 우수상에 거창 극단 입체의 <이성계의 부동산>과 진해극단 고도의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마산극단 객석과 무대의 <꽃마치는 달려간다>가 수상의 영광을 안고 각각 상장 및 상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수상했다.

개인상을 살펴보면 연출상 : 사천 장자번덕의 이훈호, 희곡상 : 창원예술극단의 현태영, 무대예술상 : 거창극단 입체 이종철, 연기대상 : 마산 객석과 무대 이상철, 진해 극단 박승규, 남자 우수연기상 : 사천 장자번덕 양길수, 여자 우수연기상 : 진주극단 현장 최윤정 씨가 영광의 수상을 안았다. 개인상 수상작은 각각 상장 및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영무 심사위원장은 "이번 연극제에 참가한 9편의 작품 중에서 절반의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충분한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는 연극

의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한 것 같다"며 "연극제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공연 레퍼토리의 선택 등은 여전히 우리 연극계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남연극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천극단의 <태>는 오는 5월 22일부터 대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23회 전국연극제에 경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통영국제음악제 최고 등급평가**

윤이상 통영국제음악제가 문화관광부 의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2004년도 공연예술분야 32개 국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고지원 사업평가 결과 5개 등급 가운데 최고등급인 A등급에서도 최우수사업에 선정됐다.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실시했던 이번 평가는 사업운영능력 홍보, 관객확보율 등 서면평가와 사업목적, 사업내용, 관객반응과 서비스 등 현장평가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특히 통영국제음악제는 서면평가(37.6점)와 현장평가(55.6점)를 합쳐 총점 93.2점을 얻어 A등급을 받은 16개 사업 중 국제현대무용제, 서울 국제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제주국제관악제와 함께 최우수사업에 선정됐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통영국제음악제는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이 행사의 본 취지인 '작곡가 윤이상 조영'이라는 큰 명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됐고, 프린지 공연을 통해 아마추어 음악단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음악 향유층의 저변확대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개선사항으로 행사의 시즌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부실화와 예산확보, 전문공연장의 미비 등을 꼽았다.

한편, 2004년도 공연예술 분야 국고지원 사업평가 결과 경남지역에는 A등급은 거창국제연극제, 경남국제음악콩쿠르,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B등급으로 마산국제연극제 영호남연극제 거창극단 입체와 밀양연극단 거리패의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등으로 조사됐다.

**밀양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작가 초대전>**

문화예술의 고장 밀양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회화작가 30여 명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밀양시청 뒤편에 위치한 미리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작가 초대전>은 국전심사위원 위주의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화 서양화 구상 비구상 등 유명 회화작가들을 초대하는 자리인 만큼 높은 수준의 작품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대표 회화작가 30여 명이 각 1점씩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중 25여 점이 100호의 대작이었다.

**대안공간 마루 <경남미술전> 열어**

경남 지역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미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단법인 대안공간마루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기획전을 마련했다.

4월 11일까지 대안공간 마루에서 '평범한 자연과 평범하지 않은 자연'이란 주제로 열렸던 <경남미술전>은 지역에서 11년째를 맞이하는 문화공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의 전시회였다.

1995년 3월 15일 창립해 10주년을 맞는 대안공간마루는 정확히 10년이 되는 지난 3월 15일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10부작 대규모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경남미술전>은 경남도 내 원로작가와 젊은 작가 총 213명이 참여하여 각 1점씩 총 213점을 10부의 전시기간 동안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10부 중 2부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지난 1부에는 도내작가 중 최고령의 원로작가들이 전시회를 가졌고 이번 2부 전시회 역시 도내의 유명 원로작가인 강숙자 강순필 강육식 김상문 김영옥 김영섭 김옥자 김진숙 김철수 문성환 박장길 박노태 윤복희 이종진 이민자 조구배 전보경 정동근 최행숙 등 19명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 이후 연이어 3부~10부 전시회가 계속 마련될 예정으로 경남도 내의 대표작가들을 거의 모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부산소식**박성권  
국제신문 기자**'프랑스 파리를 부산에서 느낀다'**

부산 프랑스문화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악회와 전시회 연극 영화제 강연회 등 프랑스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문화축제 <랑데부 드 부산>을 열고 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피아노계의 새로운 마돈나 로르 파브르 칸이 지난 11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 콘서트를 가진 데 이어 22일에는 유럽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피에를 라니오가 해운대 메리어트 호텔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가졌다. 오는 5월 21일에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소프라노 이자벨 베르네가 초청 공연을 연다.

이와 함께 지난 22~24일 시네마테크 부산에서는 상영시간이 3분 이내인 '초단편 영화' 50여 편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초단편 영화제가 열렸다.

**독도 사진전 개최**

부산근대역사관은 '우리 땅 독도'라는 제목으로 4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독도 사진 자료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독도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독도 관련 유물 48점이 전시됐다.

전시회의 초점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독도가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데 맞춰져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인 <팔도총도>와 <조선국지리도>를 시작으로, <조선국전도>와 <아세아전도> 등에서 나타나는 '조선해'와 '일본해'의 표기문제 논쟁, 국제관계에서 독도를 보는 관점, 한국전쟁 중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 등을 한데 모았다.

또 독도 관련 영상물(다큐멘터리 독도) 상영, 독도 사랑 음반(독도는 우리 땅, 홀로 아리랑, 내나라 내겨레, 터, 광야에서) 방송, 50여 점의 독도 관련 국내 출간 서적 전시 등의 행사도 같이 열렸다.

**4·19항쟁 위령제 겸 문화행사**

4·19항쟁 45주년을 맞아 『4·19항쟁 위령제 겸 문화행사』가 민주공원에서 열렸다.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4·19항쟁 희생자유족회, 4·19항쟁 부상자회가 함께 참여하는 45주년 행사는 4·19항쟁 추모위령제와 상황재현 체험행사 <4월 그 가슴으로>, 기념전시와 영화상영 등이 마련됐다. 4월 16일 열린 총체연행극 <4월 그 가슴으로>에는 4·19항쟁 45주년 상황재현 체험행사로 경남공고 학생 100여 명과 굿패 영산마루, 한국시사랑회 회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전시실에서는 4·19의 전개과정과 배경, 항쟁 당시 선언문, 조지훈 박동진 등 당시 시인들의 시 등을 전시한 <4·19항쟁 45주년 분향 닳기림>이 24일까지 열렸다.

**울속도교향악단 창단 기념 음악회**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직접 운영하는 '시민자치 예술단'이라는 문화실험을 표방하며 창단한 울속도교향악단이 4월 12일 시민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창단 기념 음악회는 폐건전지 2개와 10원짜리 동전 10개를 입장료로 내고 들어온 청중들로 성황을 이뤘다. 울속도교향악단은 7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인 KBS교향악단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대형 오케스트라이다.

지역 자연생태의 보고인 '울속도'를 내세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향악단은 '생태환경 오케스트라'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 전국 최초로 시민계좌운동을 통해 직접 교향악단의 운영 기금을 마련하는 '시민자치 교향악단'이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의미가 크다.

1년간 지원되는 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으로 단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만 지원

예산이 떨어지면 일반 시민들의 계좌 만들기  
와 연주회 수익으로 교향악단을 꾸려나가야  
한다.

이날 창단 연주회에서는 롯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과 비제의 〈카르  
멘〉 모음곡, 영화음악 모음곡, 뮤지컬 〈오페  
라의 유령〉 모음곡 등이 연주됐다.

## 광주소식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 5·18 25주년 기념 〈오월의 신부〉 공연

올해로 25주기를 맞은 5·18 광주항쟁이  
아름다운 〈오월의 신부〉로 되살아난다.  
문화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화  
행동' (문화를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김태욱)은 전남대와 함께 광주  
민중항쟁 2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창작연  
극 〈오월의 신부〉(극본 황지우·연출 이윤  
택)을 5월 20~21일(저녁 7시 30분) 전남  
대 야외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주최측은 5월  
항쟁의 전국화를 위해 광주공연에 이어 26  
일 부산(부경대 대학극장), 5월 31~6월 1일  
서울(국립극장 하늘극장) 공연도 갖는다.



이번 공연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각인된 광주항쟁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런 만큼 공연의 스케일과 내용 면에서 기  
존의 기념행사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우선 연극의 중량감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  
고의 '스타연출가'인 이윤택(국립극단 예술  
감독) 씨를 영입했다. 하지만 보다 흥미로운  
점은 부산 출신 이 감독이 '광주의 역사'를  
무대에 올린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세간의 관  
심을 의식한 듯 그는 "80년 당시 익명의 소

시민들이 보여준 위대한 개인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부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5월 광주는 더 이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역사적 비극이기 이전에 영원불멸  
의 정신성을 지닌 축제여야 한다고 생각했  
다"면서 "이번 공연을 통해 폭력과 억압에  
맞설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 지역문화교류재단 발족

광주 문화수도 조성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  
내외 학술교류 및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민  
간단체가 발족됐다.

지역문화교류재단 설립추진위원회는 4월 15  
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  
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  
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발기인 300여 명이 참  
석해 정관을 확정하고 초대 회장과 이사진  
등을 선출했다.

김상윤 추진위 사무총장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수도 조성은 지  
방과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호남학 등 지역 문화연구  
와 문화자원 창출,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등  
을 통해 문화의 시대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1천여 명의 발기인들로부터 1억2천만  
원의 기금을 확보한 지역문화 교류재단은 향  
후 지자체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해상왕 장보고〉와 중국 월극 〈심청전〉 공연

문화의 소외지대였던 전남 지역에서 주민들  
의 문화적 자양분이 되어 줄 공연이 잇따라  
열려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지부장 정중순)는 4  
월 15일 오후 4시·7시 30분에 뮤지컬 〈해  
상왕 장보고〉를 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올렸다. 뮤지컬 형식의 〈해상왕 장보고〉는  
한민족 최초로 당나라, 일본 및 아라비아 반  
도에 이르는 바닷길을 개척해 통일신라 해상  
무역을 주도한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과 모험  
을 그렸다. 만장 행렬과 상여소리가 따르는  
장례식, 한국무용과 우리 전통의상, 통일신

라 시대의 왕실 풍경, 국악기에 의한 라이브  
연주 등 동양적 문화양식을 다채롭게 풀어냈  
다. 또 한국 고유의 역동적 춤사위와 민속놀  
이가 응용된 춤과 노래를 통해 장보고의 웅  
혼한 기개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절강성 주산시 보타구 우호교류사절단  
11명과 월극 공연단 23명은 4월 19일 오후  
7시 곡성군민회관에서 중국 월극 〈심청전〉  
을 선보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99년 곡  
성군이 중국 절강성 심중 보타구와 주산군을  
연구답사하면서 맺게 된 우호교류를 바탕으  
로 기획됐다. 당시 곡성군은 곡성심청이 중  
국으로 건너가 안착하는 삶의 과정과 고국을  
그리며 불상을 배에 실어 보냈던 역사적 사  
실을 추적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인연  
을 맺게 된 두 고장은 2000년부터 상호방문  
을 시작, 매년 문화교류를 하는 등 우정을 나  
누고 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는 곡  
성군에서 중국을 방문, 청소년들의 농악과  
풀피리를 공연해 인기를 끌었다.

### 학정 이돈홍 서예술 40년전

중진 서예가 학정 이돈홍(60, 학정서예원  
장) 씨가 서예술 40년을 맞아 오는 5월 31  
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학정 이돈홍  
서예술 40년 초대전〉을 갖는다.

담양 출신인 학정은 악관의 나이에 서예에  
입문, 송곡 안규동을 사사하고 원고 이광사  
와 추사 김정희 등 한국서예의 전통을 계승  
해 왔으며 행·초서에 능하다. 21세기 한국  
서예 10대 작가에 선정됐으며 중국 쓰진청  
(紫禁城) 고궁박물관에서는 학정의 작품을  
영구소장하고 있을 만큼 국내외에서 인정받  
고 있다.

이씨는 선인들의 필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 서체인 '학정체'(鶴亭體)를 이뤄내  
는 등 한국 서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  
오고 있다. 그가 길러낸 제자만도 전국에 걸  
쳐 1만여 명을 헤아린다.

이번 초대전에 선보이는 작품은 전서·예  
서·해서·행서·초서에 이르기까지 이씨  
특유의 법고창신(法古創新)과 거침없는 운  
필의 흐름이 느껴지는 작품 130점.

전남대 출신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  
원 및 운영위원, 광주시전 심사위원장, 동아

미술제 심사위원, 국립현대 미술관 초대작가, 21세기 한국서예중진 10대작가, 국제서법 예술연합 한국본부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 전북소식

도 화 정  
전북일보 기자

### 2005 전주시민영화제

'완전' 이 시민영화제의 안정이라면, '반전' 은 독립영화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전주시민영화제가 '완전+반전!' 을 주제로 엿새 간의 당당한 외출을 마쳤다. (3월 21일 26일, 메가박스 전주)

보다 안정된 구조 속에서 영화제와 영화감독, 관객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한 집행위의 노력은 시민영화제의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올해 상영작 편수는 경쟁부문 온고를 섹션에서 20편, 비경쟁부문 프로포즈 섹션에서 38편 등 총 58편. 상영작 편수를 줄여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비중을 뒀다.

프로그램머 외에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두 명을 영입하고, 경쟁부문의 심사를 예심과 본심으로 이원화시키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했다.

한국 독립영화계에서 장편영화의 약진을 주목, 지난해 한 편이었던 장편영화 상영을 다섯 편으로 확대하고 장편독립영화 감독들과의 대화, 지역영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구조를 만든 세미나 등은 독립영화의 흐름을 반영한 기획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민영화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온고를 섹션 작품들이 수준의 편차가 크고, 수상권에 든 작품의 감독들이 대부분 그 동안의 영화제를 통해 알려진 아들이어서 지역의 신인감독 발굴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 전북 지역의 사건과 이슈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장르는 작품이 적어 수상작을 내지 못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수상작 명단은 다음과 같다. JCFF Sprit : <기수 요제피나 혹은 쥐의 일족>(감독 함경

록) · 프론티어 : <홍시>(감독 장미경) <파괴자들>(감독 손철승), <Help me>(감독 김문흠) · 쫄만더기금 : <버스정류장>(감독 태래비전) · 파이오니아 : <이브는 에덴의 밖에서 행복했다>(감독 함경록) · 해님달님(배우상) : <편성후(파란 나라) · 두근두근콩콩 : 이인순



###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판소리 사설전집' 펴내

'세계구전무형유산결작' 으로 등록돼 판소리가 인류의 값진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르거나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소장 이정덕)가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목적으로 판소리 총서 15권을 동시에 내놓았다.

판소리 속에 살아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서, 삶의 지혜,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판소리 사설전집』은 원문에 주석을 달아놓은 <교주본>과 원문을 현대어로 풀어놓은 <현대어역본>, 사설의 난해한 부분을 개작한 <현대화사설본>, 영어로 번역해 놓은 <영역본>으로 분류됐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바탕을 조사해 대표적인 이본을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교주하고 현대어와 영어로 번역해 현대사설로 만든 결과물이다. 전문가와 일반인, 외국인까지 누구나 쉽게 판소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판소리를 번역하고 사설화했다.

이번 작업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년 동안 진행된 것. 원고 분량만 해도 200자 원고지 3만4천여 장이다. 최동현 군산대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공동연구원 이태영(전북대) 유종국(전북기능대) 정석권(전북대)

오석형 교수(군산대), 박승배 유승 윤영옥 장미영 최혜진 연구원이 전라문화연구소 '판소리 연구단' 을 구성했다.

연구단은 판소리 총서를 간행물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콘텐츠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교주본과 영역본의 바탕과 바탕, 대목 등을 골라 자막화 할 수 있는 전산화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한 상태.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아직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최동현 책임연구원은 "고어나 한문, 고사성어 등의 말맛을 충분히 살리고 예술성 유지하며 현대어와 영어로 바꾸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실용화를 위한 작업인 만큼 쉬운 말로 알기 쉽게 풀이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 <아! 독도전>

#### 동쪽 끝 우리 땅 독도!!

독도 수호의 외침이 전북 미술인들에게도 전해졌다. 전북미술협회(회장 이강원)의 올해 첫 기획전 <아! 독도전>이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렸다.

'독도가 일본땅' 이라는 일본의 망언에 미술인들은 붓을 들어 반감과 항의의 표현을 담아냈다. 참여작가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행위 등 전복에서 활동하고 있는 50명. 젊은 작가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분출해 냈다.

이강원 회장은 "독도를 주제로 한 기획전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다"며 "개인의 애국심과 미술인의 사회참여 의지를 빌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15일 전시 개막식에서는 행위예술가 임택준과 심홍재의 퍼포먼스 공연도 이뤄졌다.



## 제주소식

강대유  
제민일보 기자

### 제주민예총 제12회 제주 4·3문화예술제

한때 잊혀지기를 강요받았던 4·3항쟁. 지난 시절 침묵과 망각만이 4·3의 진실과 당시 무고한 희생을 당한 원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양 강요받았다.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백성은 또다시 그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했던가.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제주도민들은 남몰래 제사를 지내면서 그 날을 기억했고, 꾸준히 적개는 3만에서 많게는 8만 명까지 희생된 4·3항쟁을 이야기했다.

제주민예총(지회장 김수열)이 4·3항쟁 57주기를 맞아 지난 4월 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일까지 9일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4·3을 기억하기 위한 제12회 4·3문화예술제 『질곡의 세월을 넘어 평화의 대지 위로』를 개최했다. 올해 4·3예술제에는 전국 민족문화인대회 제주대회와 해원상생군 등이 열려 4·3의 가야할 길을 모색했다.

제주민예총은 '역사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를 주제로 지난 4월 2일 오전 5시 30분부터 제주시 신산공원 일대에서 4·3거리굿을 벌였다. 거리굿은 오늘을 사는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졌거나 '잊힘'을 강요받아온 '역사적 실체'를 반추하고 시대정신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했고 이어 오후 7시부터 4·3의 역사적 해원을 위한 제주 4·3 57주년 기념 전야제가 열렸다. 안치환과 제주의 대표적 민중가수인 최상돈, 재일동포 가수 이정미가 평화의 노래를 선사했다.

5일에는 표선, 의귀, 수망, 한남, 토산, 남원 등의 주민들을 대규모로 학술했던 비극적 장소인 표선백사장을 찾아 중요무형문화제 제71호 칠머리당굿 보존회장인 김운수 심방이 위령굿을 집전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멍힌 한뿐만 아니라 학살터에 맞힌 살도 풀어내는 등 역사적 비극을 치유했다

탐라미술인협회는 2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12회 4·3미술제 <동행>을 열고 회원 29명이 출품한 회화, 비디오, 조소, 설치 등의 작품으로 4·3을

기억했으며 놀이패 한라산은 10일 오후 7시 제주문예회관 놀이마당에서 햇모를 소재로 현재 4·3의 가야할 길을 묻는 '사월굿 햇모-시신도 여성 헛산이라'를 공연했다. 햇모는 제주도 남군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시신 없는 무덤'으로 당시 학살된 시신을 찾지 못해 유가족들이 학살된 가족의 혼을 불러모아 옷가지를 대신 물었다. 한라산은 이번 공연을 통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아픔과 앞으로의 4·3이 가야할 길을 물었다.

또 제주작가회의 주관으로 제14회 전국민족문학인 제주대회도 4월 2일 '고통의 기억을 넘어 평화의 연대로' 주제로 열렸으며 소설가 현기영 씨와 작년 '제1회 아시아 청년작가 워크숍'에 참석했던 팔레스타인 시인 자카리아 모하메드 씨가 연대발제를 통해 전란의 참상을 체험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재현해낸 작가들로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정립하고 아시아 작가들간 연대를 모색했다.



해원상생군-표선백사장에서 열린 행사

### 재일동포 2세 화가 전시회 위해 60년 만에 고향땅 밟아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염원을 그림에 담아온 재일동포 2세 화가 김영일 씨(68·일본 오사카 거주)가 전시회를 위해 6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제주땅을 밟았다.

김씨는 지난 3월 26일 제주도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개막된 <김영일 개인전>에 부인 윤부자 씨(63)와 함께 참석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격해 했다.

31일까지 열린 '소원' 주제의 개인전에서 김씨는 그가 이제까지 그렸던 작품을 남김없이 선보였는데, 소형작품에서 200호가 넘는 대형작품 등 작품 38점은 일본 현지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일관되게 묘사해 주목을 받았던

김씨의 면면이 한치의 거짓없이 그대로 나타났다. 개막식에서 밝힌 "50년 넘게 고향 제주에 오지 못해 그림으로 그리움을 달래왔다"는 김 화백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진 전시회였다.

그의 작품은 판소리며 인형의 시·마당놀이·풍자·암야·소망·장구놀이·웃놀이·사자무·빨간저고리인형 등 김씨가 일일이 따다 붙인 제목과 김씨의 그림들은 모두 조선 국적의 작가가 일본 속의 조선인으로 살면서 일본 현지인들에게 받는 차별과 멸시에 대한 분노이자 항거이며, 탈을 쓰고 한비탕 노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와 민족통일의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 제주 4·3독립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

사상 최초로 4·3항쟁을 소재로 한 본격 극영화로 제작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제주 4·3독립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김경률 감독·설문대영상 제작)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반세기 동안 가려져 있던 4·3항쟁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억울한 희생에 대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제작된 제주 4·3독립영화 <끝나지 않은 세월> 제주도민사회가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시 코리아극장에서 열렸다.

이 영화는 주인공 형민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황가의 이야기를 엮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중구조 속에 4·3이야기를 풀어냈다. 백발이 된 형민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 어린 형민을 만났고 그 만남 속에 처절한 4·3을 보여줬다. 또 황가는 무장대에서 경찰로 변질되면서 겪게 되는 고통을 보여주며 4·3의 현재적 모습을 돌아보게 했다.

이 영화는 4·3항쟁을 다룬 최초의 장편극 영화라서 그런지 시사회 내내 4·3유족 등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극장을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영화 상영 도중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올 때마다 객석에서는 지난 세월의 참혹한 기억 때문인지 한숨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설문대영상은 엔딩 장면을 통해 무자기축년 그날, 꽃잎처럼 스러져간 선조들의 영전에 이 영화를 바쳤다.